

석사학위청구전

그럼에도 불구하고-가로수 초상

2021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동양화와진채화전공

권 수 념

석사학위청구전
지도교수 강관식

그럼에도 불구하고-가로수 초상

2021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동양화와진채화전공

권 수 념

석사학위 청구전
지도교수 강관식

그럼에도 불구하고-가로수 초상

위 논문을 미술학 석사학위 청구전으로 제출함

2021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동양화와진채화전공

권 수 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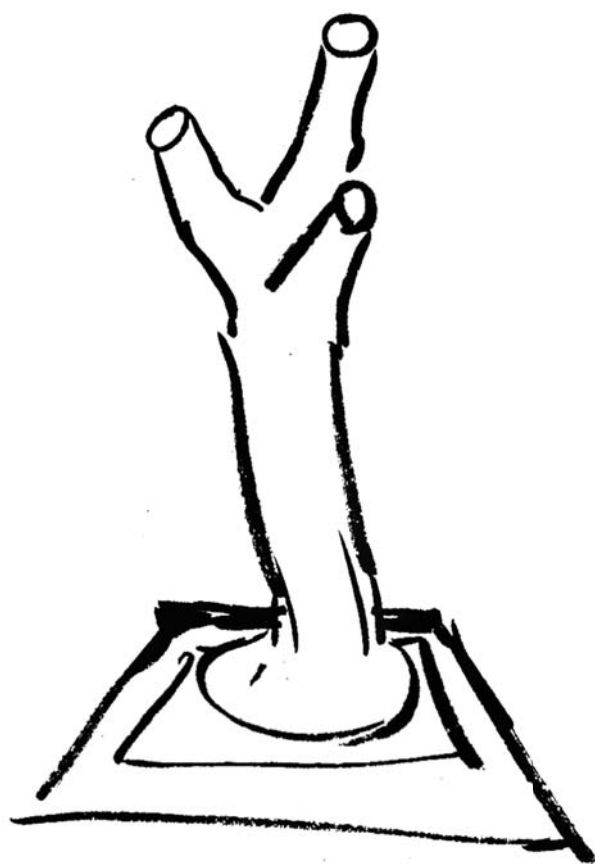
권수녕의 미술학 석사학위 청구전을 인준함

2021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 가로수 초상

학교 가는 길은 버스를 타고 한 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였다. 자연스레 버스 안에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 지루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차창 밖 풍경을 보는 것은 일상이었다. 창문을 통해 보는 도시의 풍경은 회색빛 도로와 건물들, 그리고 도로를 따라 인도에 심어진 가로수였다. 변함 없는 도로 풍경에서 가로수는 계절마다 다양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가지치기를 하고 몸통만 남은 가로수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나무의 생장이 휴지기를 가지면 가로수의 가지치기가 실시된다. 나무의 가지가 고압선에 근접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교통 신호등, 안내판과 같은 안전 시설물을 가리는 등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우 가지치기를 한다. 가지치기는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쾌적한 거리를 만들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로수의 가지를 치는 이유는 인간의 편의성과 도로의 미관을 위함이다. 개인은 태어날 때부터 사회에 소속된다. 가족, 학교, 회사 등 다양한 사회집단에 소속되어 그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교육 받으며 성장한다. 그 과정에서 개인은 기성 시스템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지만 자유의지를 억압받는다. 사회의 질서, 집단의 유지, 편의를 위해 사회체계에 맞게 사회화되는 나(개인)와 인간의 편의성과 도로의 미관을 위해 가지치기 되는 가로수의 모습이 닮았다. 사회화 되가는 개인들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거리의 나무들 또한 가지치기 된 후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존재한다. 현대를 살고 있는 개인들의 모습을 가로수의 초상으로 대변하여 보여주고자 한다.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 옳고 그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속해 있는 사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개인들의 초상을 가로수의 초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응원을 전한다. 나무는 생명력이 강하다. 두꺼운 기둥을 잘라내어 크고 붉은 단면이 드러난다고 해도 다시 아물고 새로운 싹을 틔우고 푸른 잎사귀를 키워 낸다. 그 모습처럼 사회에 좌절하였다고 해도 다시 극복하길 바라는 작가의 응원을 담는다.

조선시대 초상화는 동양회화론 중 전시사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초상화는 특정한 인물을 그려내는 회화로 인물의 외형과 내면을 담아내며 형에서 오는 사실성보다 그 상을 취하는 사의를 더 중요시했다. 이는 가로수가 가진 아픔과 그 것을 극복하고 다시 자라나는 강한 생명력을 보는 이에게 응원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나의 뜻과 맞닿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초상화의 양식과 표현기법을 따랐다. 조선시대 초상화는 감상용이 아닌 제사용으로 주로 제작되면서 도식적인 양식과 딱딱한 분위기가 고착되었다. 조선시대 초상화의 도식화된 양식을 따라 대상을 화면의 가운데 배치하고, 배경을 생략하고, 사실적인 묘사에 중점을 두어 표현하였다. 후에 배경에 전깃줄과 도로의 풍경을 넣었는데, 이는 사회와 개인의 관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전깃줄과 도로 풍경은 사회를 상징하는 장치로 조선시대 초상화에서 대상 인물이 현존한 시대상이 반영된 의복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초상화에서 또 다른 주목한 부분은 비단의 사용이다. 비단의 투명함을 이용하여 뒷면에서 채색하여 앞면에 우리나라 채색방법인 배채법은 맑고 깊은 느낌과 세밀한 묘사를 가능케 한다. 또 사실적인 형을 통해 대상의 내면이 우리나라 오는 것을 중시한 전시사조와 잘 맞아 떨어진다. 비단은 투명한 만큼이나 다루기 까다로워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많은 공정들이 있다. 그 공정들을 하나라도 소원하게 했다가는 기어코 후회할 일이 생긴다.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고 그림이 완성되면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어 낸 기분이 든다.

그림의 완성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은 수행이다. 잘린 나뭇가지에서 새로운 싹이 자라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든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나무는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며 힘들게 싹을 틔운 것일 수 있다. 아름답리 큰 나무는 고된 수행 후 얻은 결과물인 것이다. 비단 작업은 수행 후 얻은

작가의 결과물이다. 이 결과물이 담고 있는 많은 이야기와 생명력이 보는 이에게 닿아 아름답
리나무로 성장하길 응원하는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

사회화란 사회구성원이 성장하면서 그 사회의 문화와 가치를 습득하는 과정을 말한다. 사회
는 이러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 정체성을 유지하게 되며, 개개인은 이러한 사회화를 통해 체제
에 적응하게 된다. 이 설명은 사회화의 순기능을 말하고 있다. 가로수 초상은 지나친 사회화가
개인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사회화의 역기능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들
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사회화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인정한다. 사회화를 거부
하는 것이 아니라 순기능으로서 발현되길 바란다.
같은 시대와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당신과 같은 개인으로서 사회 체제에 좌절한 많은 개인들을
응원한다.





아빠 초상

65.1 x 53 cm

비단에 진채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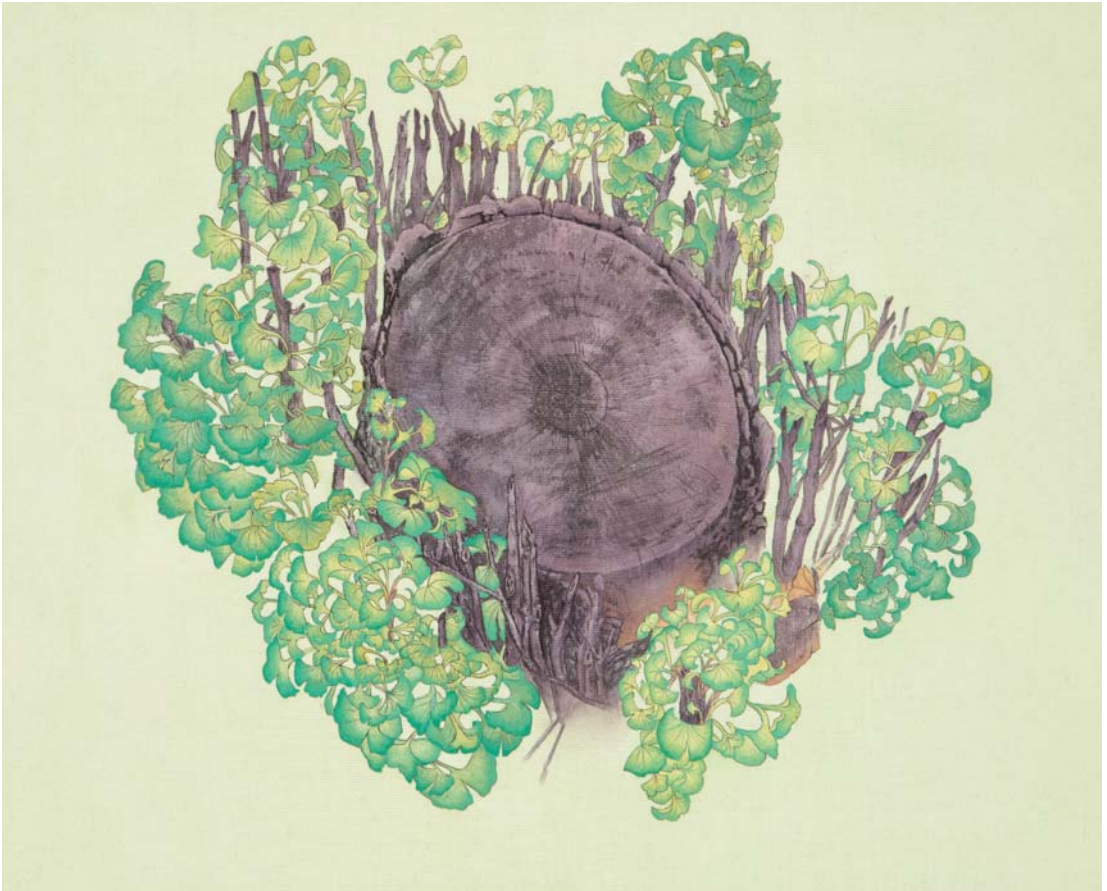
식물, 인간 - 자화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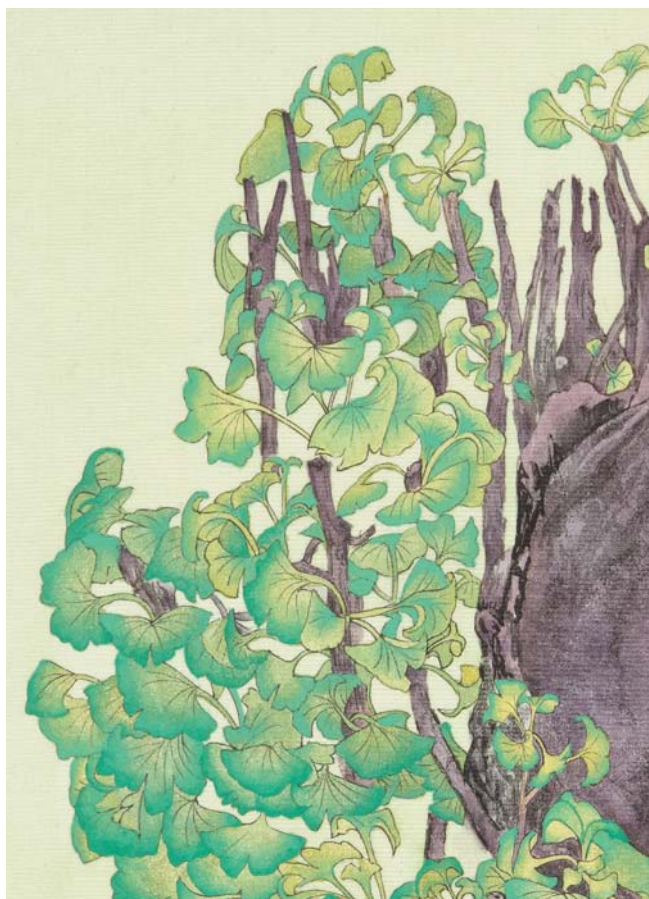
72.7 x 53 cm

비단에 진채

2019







그림에도 불구하고 - 봄

50 x 40 cm

비단에 진채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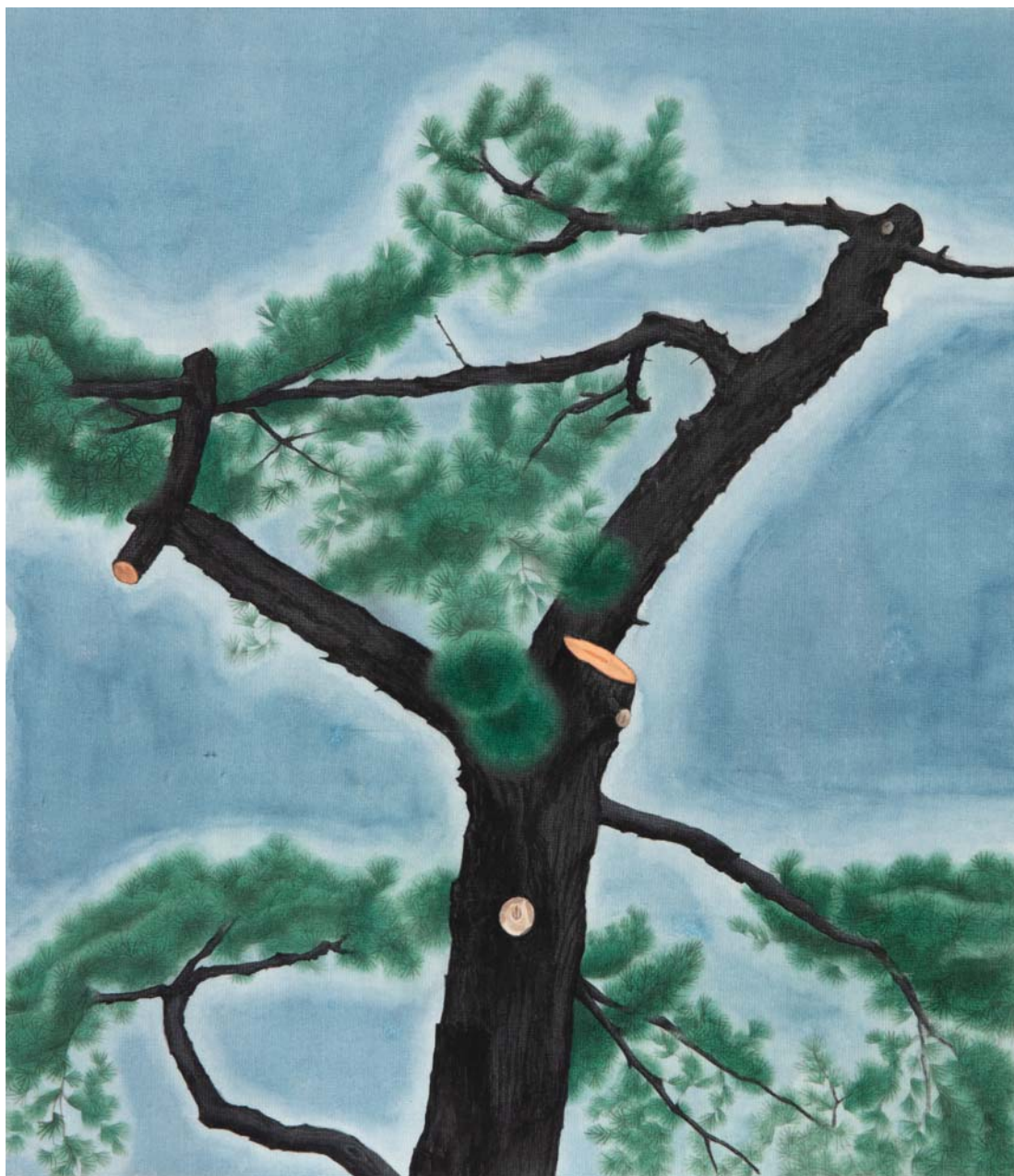


그림에도 불구하고 - 벚꽃

40 x 20 cm

비단에 진채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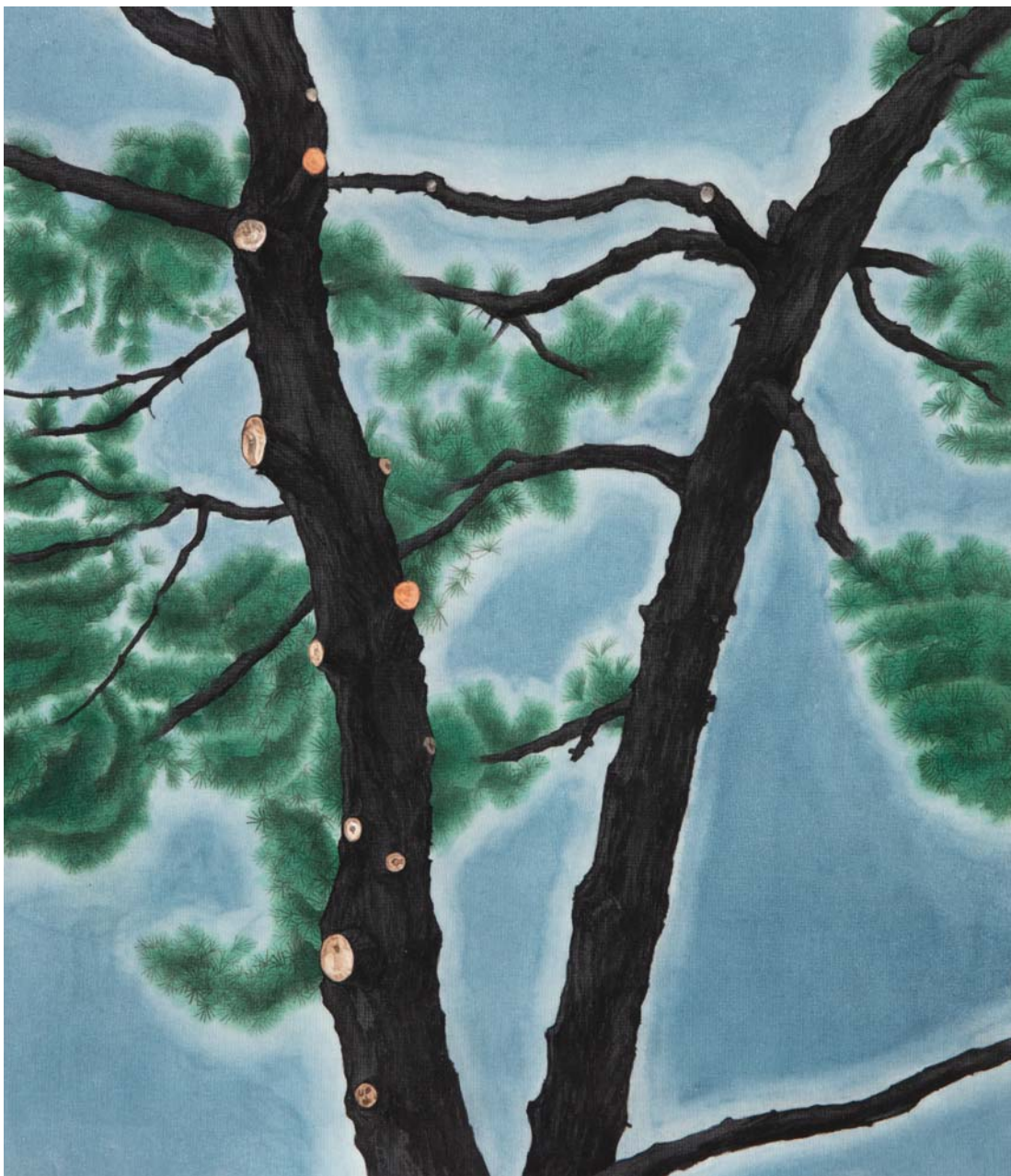


허용 I

53 x 45.5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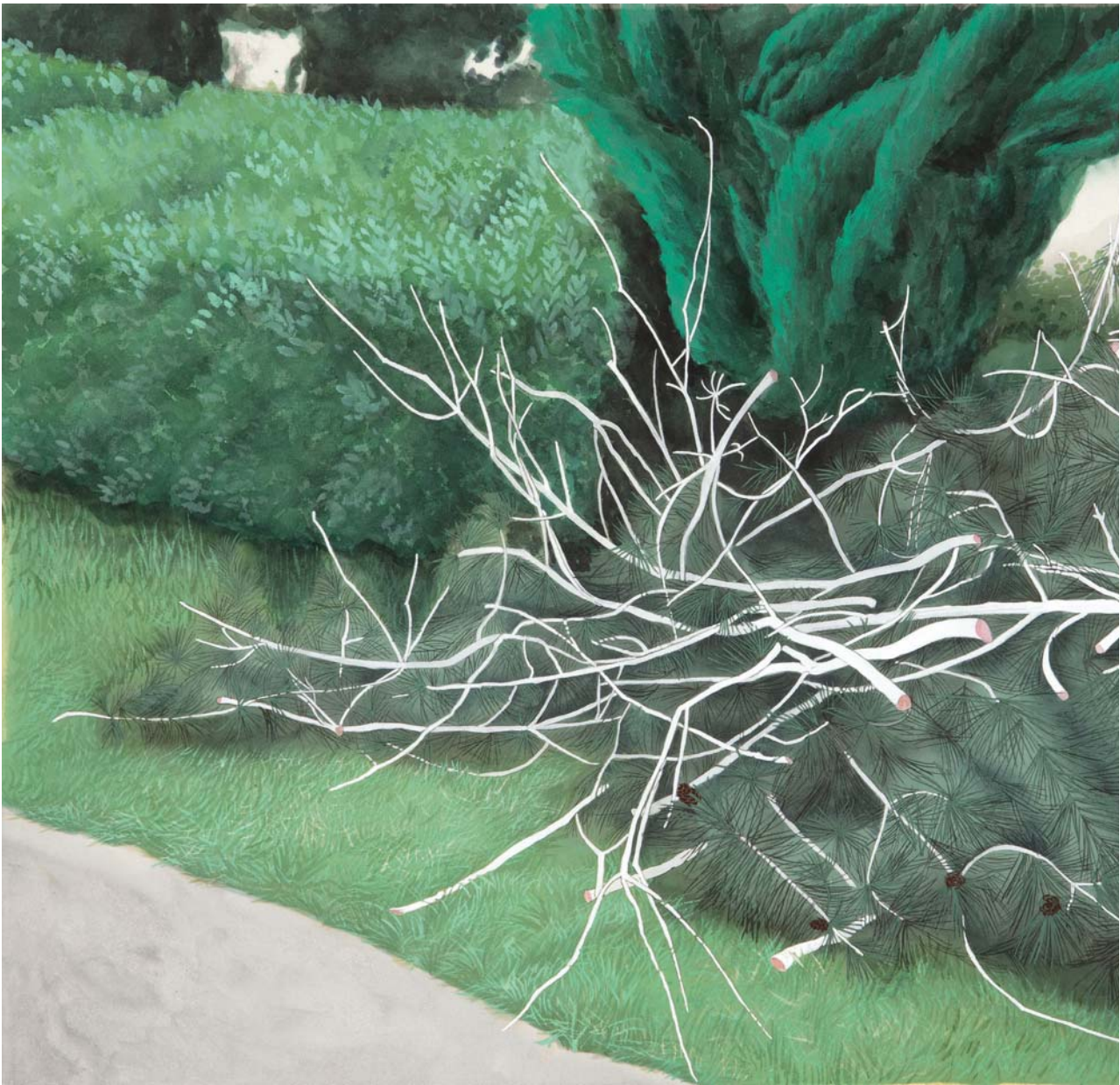
비단에 진채

2021



허용 II

53 x 45.5 cm
비단에 진채
2021





불필요

90.9 x 72.2 cm

비단에 진채

2021

주어진 자리

90.9 x 72.2 cm

비단에 진채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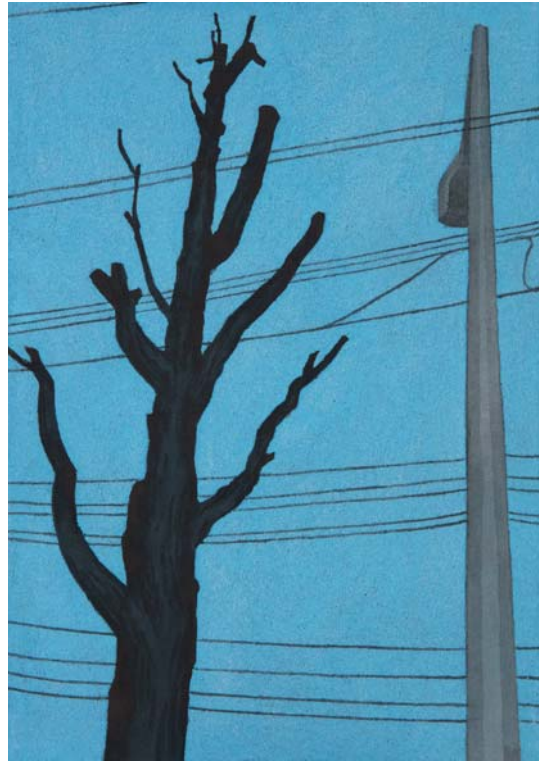
조용한 반향

72.7 x 60.6 cm

비단에 진채

2021





유리천장

25.8 x 17.9 cm

비단에 진채

2021



가로수 초상

103.3 x 97 cm

비단에 진채

2021







붉은 얼굴

145.5 x 112.1 cm

비단에 진채

2021

Insider

145.5 x 89.4 cm

비단에 진채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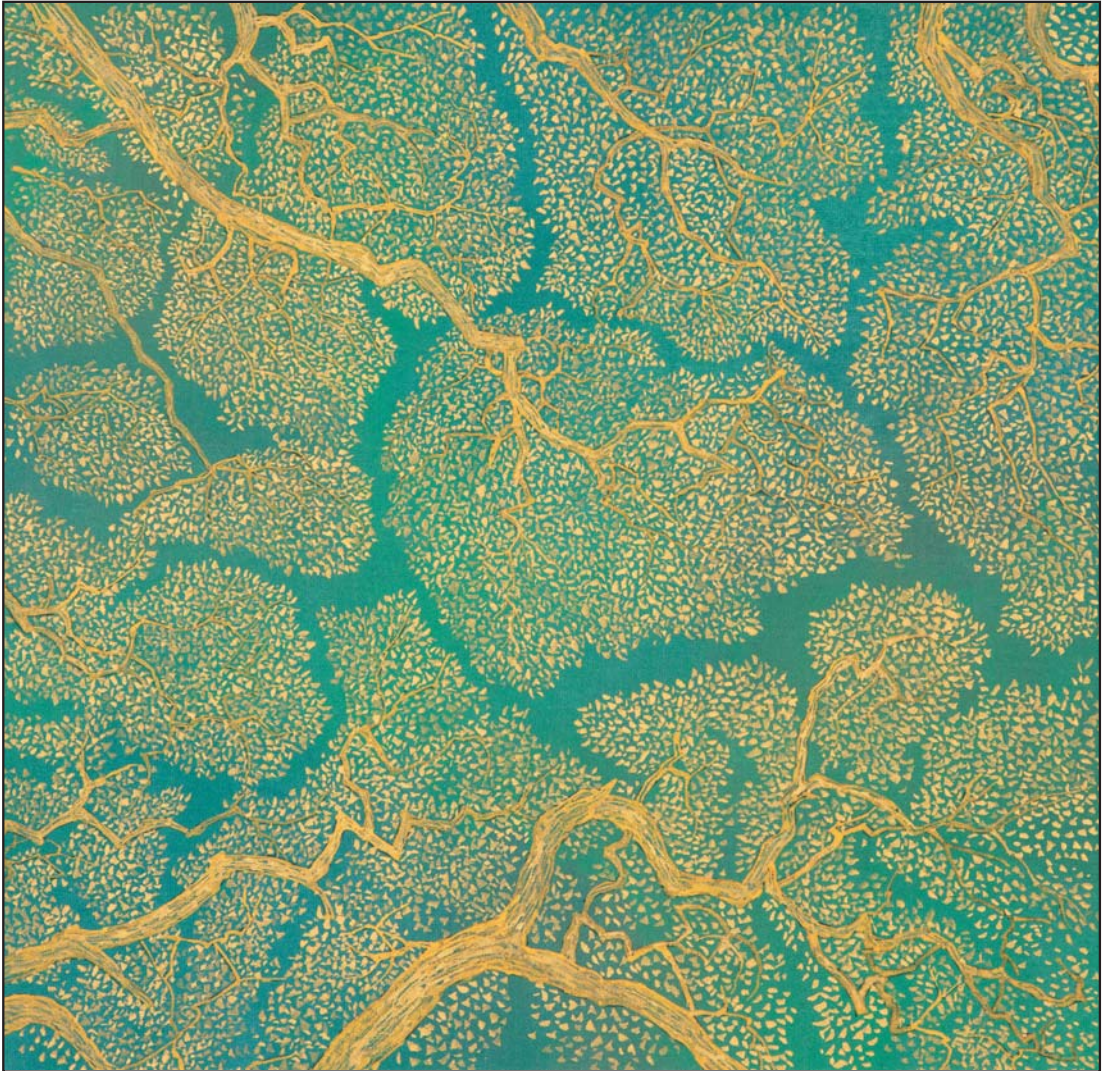
순응자

145.5 x 89.4 cm

비단에 진채

2021





Utopia

30 x 30 cm

비단에 진채

2021

권수녕

KWON SU NYEONG

snk327@naver.com

www.instagram.com/calm_su39

한성대학교 대학원 회화와 동양화와 진채화 석사 수료

전북대학교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졸업

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개인전

2021 그림에도 불구하고-가로수 초상 GAGOSIPO 갤러리, 서울

단체전

2019 진채의 정수, 초상 갤러리이즈, 서울

천년전통의 부활 : 세화 갤러리 한옥, 서울

2018 새해맞이 그림선물축제 : 세화전 갤러리 한옥, 서울



그림에도 불구하고-가로수 초상

석사학위청구전

GAGOSIPO 갤러리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5가길 16

2021.05.19(수) - 05.23(일), 11:00 - 18:00